

## “2005년, 세계 특허법이 통일된다.”

- 특허청에 따르면 2005년경 각국의 특허법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외국에서도 빠르고, 저렴하고, 편리하게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특허법이 국제적으로 통일되면 발명자들은 해외에서도 국내에서와 같은 요건과 절차에 따라 특허를 취득하고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국가간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주관으로 '85년부터 진행되어온 특허법 통일화 논의는 2000년 6월 각국의 특허 절차를 통일시킨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의 타결로 첫 번째 결실을 맺은 바 있으며, 현재 어떠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특허요건)을 통일하기 위한 특허실체법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미국이 그 동안 통일화 논의의 최대 장애요소였던 선발명주의를 조만간 포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특허실

체법 통일화 논의가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특허법상설 위원회에서 선발명주의가 특허실체법 통일화를 지체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국의 발명가단체에 대하여 선발명주의 포기를 위한 설득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수차 밝힌 바 있다.

-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게 되면, 2003년경 특허실체법조약이 타결되어 2005년경에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 특허청은 2004년까지 특허법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2005년경 특허절차법조약과 특허실체법조약에 동시 가입할 계획이다.
- 특허청은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최근 특허청과 산업계, 변리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법통일화기획단을 발족시킨 바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제협력, 특허법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및 대외홍보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MP3P 특허 국내기업이 주도

- 전세계 MP3P의 50%를 국내기업이 생산 공급

MP3P 관련 특허 < 실용신안 출원은 국내기업이 230여건(96%)으로 외국기업



의 10건(4%)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또한, 이 분야의 출원은 1997년도를 기점으로 기초기술에서 카오디오용, 카세트이프 호환형, 어학학습용, 휴대폰탑재형 등 다양한 응용기술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MP3P는 멀티미디어화와 멀티코덱화 기술로 발전하리라 예측된다.

○ MP3P 특허 ◀ 실용신안 출원동향을 보면, 2001년 1월말까지 총 240여건이 출원되었으며 이중 국내기업이 230여건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하였다. 반면, 외국업체는 10여건으로 4%에 불과하다. 이것은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외국인이 출원한 특허가 전체평균 30.4%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MP3P 기술은 국내기업이 외국기업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외국기업으로는 일본의 소니사, 샤프사, 마쯔시다사, 히타치사와 독일의 폰티스사 등이 있다.

〈국내·외국인별 출원비중〉

	내국인	외국인	계
MP3P 출원건수(비율)	228(95.7%)	10(4.34%)	238
전체 특허출원건수(비율)	440,367(69.6%)	192,308(30.4%)	632,675

○ MP3P란 동영상압축(MPEG) 기술에서 오디오 데이터를 고음질, 고압축한 Audio Coding Layer-3 포맷(MP3)의 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장치이다. 초기 휴대용 MP3P에서는 오디오 데이터의 저장장치로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였으나, 이후 용량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CD, HDD 등을 사용한 제품도 개발되었다.

- MP3P 관련기술은 1990년대 초, 휴대용 디지털 정보처리기와 인터넷 PC에서 MP3 파일재생기술에서 유래하였다. 1997년 휴대용 MP3P가 상품화된 이후, 카오디오용, 카세트이프 호환형, 어학학습용, 휴대폰탑재형 등 MP3P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기술이 출원되었다.
- 카오디오용 분야의 출원은 MP3P를 내장한 카오디오 시스템으로 고음질과 대용량 등 편리한 기능을 부가하는 추세이다. 카세트이프 호환형 분야는 카세트이프 플레이어에서 MP3 음악도 재생이 가능하고 그 자체로도 휴대용 MP3P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어학학습용 분야의 출원은 어학 학습을 위한 MP3 파일을 재생하면서 동시에 학습능률 향상을 위한 기능의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휴대폰탑재형 분야는 휴대폰과 MP3P 기능을 복합한 것으로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MP3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등 편리한 기능을 부가하는 경향으로 출원되고 있다.
- 앞으로의 MP3P 기술은 멀티코덱(multi-codec)화와 멀티미디어(multimedia)화로 발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멀티코덱(multi-codec)화 기술은 오디오 데이터가 MP3 포맷으로 한정되지 않고 WMA(Window Media Audio), AAC(Advance Audio Coding) 등의 다양한 오디오 포맷도 하나의 플레이어에서 재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멀티미디어(multi-media)화는 유무선통신 기반의 동영상압축(MPEG-4) 기술로 오디오는 물론 정지영상 및 동영상의 재생까지도 지원하는 기술이다.

- 한편, 세계적 시장조사기관인 IDC는 시장규모가 2001년도에 7억 달러에서 2005년도에 30억 달러로 매년 6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내기업이 전세계의 MP3P 판매 물량의 50%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MP3P가 반도체 메모리, 휴대폰 단말기, 디지털 셋톱박스 등과 함께 우리의 대표적인 IT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MP3P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 기업은 OEM 방식의 수출을 줄이고 고유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우선 우수한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과 이를 선진국 출원, 국제출원(PCT) 등으로 국제권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요 수출대상국의 특허를 파악하여 예상 가능한 분쟁에 대한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 상표, 의장분야 여성출원 큰폭 증가

2001년도 상표, 의장분야의 개인 출원을 분석한 결과, 2000년도에 비하여 남성출원은 2.4% 증가한데 그쳤으나, 여성출원은 20.4%나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상표, 의장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도 여성과위가 발휘될 것인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일부 그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밝다고 하겠다.
- 특허청에 따르면 2001년 여성의 출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표·의장분야에서 남성출원이 2.4% 증가한데 불과하였으나, 여성출원은 20.4%나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표권의 출원 추이는 남성의 출원이 2001년에 0.3% 증가한 것에 그쳤으나, 여성출원은 15.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 의장권의 경우 같은 기간 남성의 출원이 6.1% 증가에 그친데 비해, 여성출원은 36.8%로 대폭 증가하였다. 상표권 및 의장권의 등록면에서도 남성들의 이 분야에 대한 등록추세가 감소한데 비하여 여성은 증가추세로 대조를 보였다.
- 한편, 양 권리의 등록추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같은 기간  $\Delta 5.4\%$ 의 감소세를 보인 반면, 여성들의 경우는 약간이나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표권의 경우 남성은  $\Delta 3.6\%$ 의 감소를 보였으며, 여성의 경우 0.3%로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 의장권의 등록은 남성의 경우  $\Delta 6.8\%$ 로 감소한 데 비하여 여성의 경우 3.9%의 증가를 보여 상당한 대조를 보



였다.

이와 같이 여성들의 출원이 늘어난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상표 및 의장권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 변화, 그리고 유연하고 섬세한 여성의 감각이 이 분야에 잘 맞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이와 같이 상표와 의장권에 걸쳐 여성의 출원증가율이 늘어나는 것은
-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활발한 경제계 진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성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상표와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자기의 권리로서 갖고자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나아가, 상표의 경우 출원과 등록절차가 쉬울 뿐만 아니라, 처음 등록을 받고 10년마다 갱신을 하면 자기의 권리로써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권리여하에 따라 무한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권리로 부각되고 있으며, 비즈니스에서 점점 브랜드(Brand)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출원이 계속 증가하리라 기대된다.
- 치열한 상품 판매 경쟁에서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촉발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의장권(意匠權), 즉 디자인 분야 역시 섬세하고 독창적인 여성의 감각과 가장 잘 어울리는 분야로서 앞으로 여성들의 활약이 크게 기대된다.
- 아직 의장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출원 및 등록비율이 9대 1 정도로 여성의 잠재능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과 같은 증가 추세라면 여성출원이 남성과 어깨를 견줄 날도 멀지만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 감성사회(感性社會)에서는 섬세하고 유연한 여성들이 지식재산권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흔히들 21세기를 지식정보사회이자 감성사회(感性社會)라고 한다. 정보 지식의 분석에서부터 생성과 활용은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정보와 지식을 권리화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 확보는 기업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시대가 되고 있으며, 20세기의 물질중심사회를 넘어 인간의 감성을 존중하고 감성만족(high touch)을 지향하는 것이 사회전반의 중심 테마로 자리잡고 있다.
- 이와 같은 시대에서 여성의 유연한 사고와 섬세한 감각은 상품과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바야흐로 21세기를 여성의 시대라고 할만 하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우리나라 여성들이 상표나 의장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갖고 개발에 열중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

로 보이며, 이는 그 동안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우리사회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여성의 경제진출에 따른 여성파워의 자연스러운 표출이며, 아울러 그 동안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관장하는 특허청의 꾸준한 정책 지원과 전자출원시스템 개통 등 인프라 구축에도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 특허청은 그 동안 여성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을 장려하고자「여성발명활동 특별지원시책」을 특허청의 7대 시책으로 선정하여 보조금 지원, 각종 여성발명 전시회의 개최와 지식재산권 설명회 등의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 '99년 1월에 개통한 전자출원시스템은 세계 최고(最高)수준을 자랑하는 것으로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고 손쉽게 '안방'에서 출원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 앞으로, 특허청의 여성발명 지원시책과 여성계의 지재권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상호 작용하여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큰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 “PCT출원 국내단계진입 절차 달라진다”

특허청은 국제특허출원(PCT출원)의 국내단계진입 절차를 개선하여 PCT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을 하는 출원인에게 보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출원인의 의도와는 달리 출원이 취하되는 일이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특허청은 국제특허출원(PCT출원)에 대한 국내단계 진입을 하는 경우에 서지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 국내단계 진입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하고 미제출시 보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출원인의 의도와는 달리 출원이 취하되는 일이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종전에는 출원인의 부주의로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서류제출 기한을 넘겨 출원이 취하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최근 개정된 PCT 조약을 반영하여 국내단계진입 시한을 30개월로 통일하고, 등록료 부족납부시 보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 금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1) PCT출원 국내단계 진입 절차 개선

- PCT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을 하는 출원인에게 출원인·대리인·발명자와 국제출원번호 등 출원정보를 기재한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 국어로 된 PCT 출원의 경우 상기 서면을 기간내에 제출하면 번역문을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절차가 간소화 됨



## 2) PCT 조약의 개정 반영

- PCT출원에 대하여 번역문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시한을 국제예비심사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30개월로 통일

## 3) 등록료 보정기회 부여

- 등록료 납부 기간내에 납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금액을 부족납부한 경우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여 의사에 반하는 권리의 상실을 방지

## 4) 기타

- 실용신안등록 출원이 기초적인 요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리 납부된 등록료를 출원인에게 반환하도록 함
- 보정제도와 관련한 규정 중 조문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함
- PCT 출원의 취소결정 및 무효심판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PCT출원의 기술내용과 국내단계진입시 제출한 번역문의 기술내용이 같은 경우에만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특허청에서는 본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의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다.

자거리 특허 풀(Pool)을 형성, 플랫폼 기술을 상호 제공하고 제품판매 수익의 일부를 기술료로 징수해 공동 분배하는 '특허 라이선싱' 전략을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내 바이오 업계의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허청(www.kipo.go.kr)에 따르면 지난 1월말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바이오기술 전문가회의에서 노바티스·젠자임 등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들은 라이선싱과 기술료 문제를 해결키 위해 국제적인 특허 풀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안미정 특허청 유전공학심사 담당관실 심사관은 "BT분야 특허누적 현상을 해소하고 기술 라이선싱을 활성화하기 위해 IT 분야처럼 특허 풀을 이용한 라이선싱 전략이 현실성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라며 "1~2년 사이에 구체화되긴 어렵지만 특허 라이선싱이 BT업계의 주요한 전략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OECD 바이오전문가회의에서는 소니·필립스 등 MPEG-2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과 대학이 이 기술을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 라이선싱을 하기 위해 설립한 "MPEG LA"의 로런스 혼 부사장을 초청해 특허 풀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주요 바이오업체들이 공동 특허 라이선싱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첨단 바이오 완제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특허가 필요하고 기업이 특허권자와 일일이 특허 협상을 벌일 경우 기술료 부담이 너무 커지기

## 바이오 특허Pool이제 도입 움직임..대책 마련 필요

미국 등 선진국의 바이오의약 회사들이 제품 특허권

때문이다.

이 문제는 결국 라이선싱과 제품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식물에서 헤모글로빈을 생산할 경우 식물형질전환기술·제법(製法)기술·유전자 등 13가지 특허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세계 유수의 바이오 기업들은 유전자 특허 등 고부가가치 기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특허 풀을 통한 기술 라이선싱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특허 풀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기술료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미정 심사관은 “개별 특허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와 특허권자의 이익배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제품생산 후 적정이익의 보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힘을 받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특허 라이선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 반도체 업계 중국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 미흡

중국을 앞으로 몇 년 후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기지 중 하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으나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국 정부가 신기술 불법 복제를 방지하는 데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첨단기술 업계에서는 대규모의 시장과

저렴하면서도 숙련된 노동력 등의 이유로 중국을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시장으로 꼽고있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 유수의 컴퓨터 및 휴대폰 기업들은 중국이 첨단기술 제품 생산 기지가 될 것으로 관측해왔다.

그러나 뉴욕에서 열린 한 업계 회의에서 반도체 장비 공급업체들은 중국에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조적으로 상당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업계 관측통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 가운데 하나인 저작권 보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첨단기술 업계 생산기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 ◆ 제휴 추진해도 현지업체는 “No”

암코테크놀로지의 브루스 프라이먼 부사장은 “법률에 명시된 사항이 반드시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장비업체인 악셀리스트테크놀로지스의 최고영업책임자(COO)인 마이클 루터티도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이 반도체 업계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프라이먼 부사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프로트로닉스의 아시아 담당 부사장인 댄 텔 로사리오도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국 진출을 위해 현지 업체보다는 외국 기업이 지분을 모두 소유한 자회사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텔 로사리오 부사장은 중국 기업과 설립한 합작법인은 종종 중국 정부와 연관된 기



관으로부터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현지 업체가 합작 법인의 지분을 조금만 보유하고 있어도 현지 업체가 핵심 경영진을 장악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이 중국의 핵무기 개발에 도용되지 않도록 일부 기술에 적용하고 있는 수출 제한 정책도 반도체 업계의 중국 진출 걸림돌로 지적됐다.

출처 머니투데이

## 한-중 특허권 일본 추월 대비

**한국과 중국이 세계 특허수에서 일본을 따라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지신문이 보도했다.**

한국은 지난해 세계 8위에 랭크, 처음으로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상태며, 중국은 12위에 올랐다. 이 신문은 특히 중국의 경우 지난해 전년대비 무려 3배나 많은 특허를 신청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현재 모두 1670건의 특허를 신청, 1999년의 240개에서 비약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국은 지난해 총 2138건으로 전년대비 53.1%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 신문은 한국의 빠른 성장세가 반도체 분야 등에서의 기술 혁신 등 정보기술(IT) 분야에서의 진전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외국 기업과의 특허 분쟁을 미연에 막기 위해 삼성전자 등

에서 적극적인 특허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점도 특허수를 늘이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경우에는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수입 제품이 급증할 것에 대비, 자사의 특허권을 미리 방어하기 위해 기업들이 폭발적인 특허 신청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이 같은 특허 경쟁은 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쟁이 지적 소유권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세계 최대 특허국인 미국은 지난해 전년대비 4.8% 늘어난 4만3천건의 특허권을 신청했으며, 뒤이어 독일은 13.1% 증가한 1만3616건을, 일본은 26% 늘어난 1만1846건을 신청했다. 일본은 지난해 처음으로 1만건을 돌파했다. 세계 전체로는 14.3% 늘어난 10만3947건을 기록했다.

## 김연자 상표 김치 일본 수출

**농림부로부터 김치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김연자 씨의 이름을 브랜드로 내세운 김치제품이 일본에 수출된다.**

국내외 시장에 양반김치를 판매하고 있는 동원F&B는 김연자김치를 출시해 다음달 초 일본 오사카,삿포로 등지에 수출키로 했다.

박인구 사장은 "일본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김씨의 명성을 한국김치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 WIPO, 新국제특허제도 창설 논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요 회원국 특허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회의를 열고 기술혁신이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국제특허제도 창설을 포함한 제도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허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윤리적 문제 ▲이용자의 관점에서본 국제특허제도의 개혁 ▲국제특허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감소 방안 ▲특허출원 명세서의 표준화 ▲특허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공중보전과 특허정책 ▲유전자원과 전통 지식의 보호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제네바 대표부의 안재현 특허관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국제특허출원의 폭발적인 증가 등 국제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기존 특허제도는 복잡한 절차와 고비용, 처리기간 지연, 각국의 중복심사 등으로 인해 발명가, 기업, 특허관청 모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안 특허관은 따라서 "이번 회의는 논의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제특허제도의 탄생을 최초로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 BM 특허 출원 40% 감소

지난해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BM) 관련 출원건이 40% 이상 급감한 반면 등록건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발표한 "2001년 전자상거래 분야 특허 출원·등록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원은 총 5962건으로 BM 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지난 2000년 9,655건에 비해 40% 감소했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벤처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거품성 부실 출원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부 분야별로는 쇼핑몰 및 거래시스템이 538건으로 가장 많고 금융서비스 276건, 교육 및 의학·환경관리 238건, 정보검색 221건, 복권 및 상품권 발행 171건, 물품·장비 관리 및 택배 131건, 광고·홍보 125건, 게임 121건 순이다.

내외국인별로는 내국인 출원 비중이 소위 "묻지마" 출원 감소 영향으로 2000년 98%에서 90%로 낮아진 대신 외국인 출원 비중은 2%에서 10%로 높아졌다.

출원인 분포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50%를 차지, 대기업(20%)과 개인(30%) 출원을 제치고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M 관련 등록 건수의 경우 2000년 174건에서 338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00년 폭발적으로 증가한 BM 관련 출원의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기 때문으로 올해는 등록 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BM 관련 출원의 특허결정률은 35%로



전기 및 전자 분야(68%) 특허결정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BM 관련 우선심사 신청 건수는 155건으로 2000년 232건에 비해 40% 가까이 감소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해 BM 관련 출원이 줄기는 했지만 현재 심사관 인력으로는 물량이 많아 심사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향후 출원 증가 및 심사 적체에 대비해 심사관 증원 및 전자상거래 전담 심사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출처 전자신문

## 일본, 특허권으로 증권 발행 거래

이달부터 일본에서 특허권을 가진 기업이 장래의 특허사용료 수입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 일반인에게 파는 새로운 특허거래가 시작된다.

이를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달 중 정보기술(IT)이나 생명공학 기업 가운데 하나를 골라 보유 중인 특허를 증권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허보유 기업은 우선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 특허사용권을 넘긴 뒤 미래의 특허사용료 수입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팔게 된다. 증권매각 대금은 곧 특허보유 기업에게 돌아가므로 기업은 연구개발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다. 특허 거래가 들어간 첨단 기술 특허의 경우 증권으로 만들어 여러 사

람에게 쪼개 팔 수 있게 돼 자금회수가 쉬워진다.

특허를 이용하는 기업은 SPC에 특허사용료를 지급하며, 이는 채권을 사들인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으로 상환된다.

이런 방식의 거래를 통해 벤처기업들의 기술개발연구가 촉진되는 동시에 산업계 전체적으론 지적 재산권의 유통이 활성화돼 산업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지금까지는 특허보유 기업과 사용기업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야 했기 때문에 특허권을 따낸 뒤부터 사용료를 받아 개발자금을 회수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 월드컵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특별단속

부산지방경찰청은 2002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 트레이드 마크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번 단속은 지방청 수사과와 일선 경찰서 수사과를 중심으로 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실시되며, FIFA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업소들의 월드컵 상표 사용 축구공, 모자, 의류, 열쇠고리 등 각종 상품 제작 및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실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행위,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킬 상호

상표·용기 사용행위, 저작권 침해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이 실시된다.

출처 연합뉴스